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1-11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여호수아가 특별히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영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가장 암울하고 무질서한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조들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물려 받았지만, 그들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극심하게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인간의 실수와 타락으로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뒷편에서 조용히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삼상 1:6)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삼상 1:10)

한나의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눈물이며 통곡 그 자체였습니다. 한나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삼상 1:11)

한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서원을 합니다. 아이의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험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만약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노라는 마음의 결단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그 결단을 이행합니다.

“젖을 떤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축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삼상 1:24-27)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신 23:21-23)

성도 여러분, 서원은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더 크게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내 눈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더 크게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할 때는, 그 서원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어떻게 헌신할지, 그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는 상황에 몰려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하되 철저히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서원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신중하게 서원하되 그 서원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 오히려 제사장은 책망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삼상 1:13-14)

한나는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위로와 격려가 아닌, 책망과 질책을 주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있어서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제사장,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리더들과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기도 응답이 주어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치 저울에 그 무게를 달아 측정하듯,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만약 한나가 자신을 책망하는 제사장과 다투거나 그것으로 인해 넘어졌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삼상 1:15-16)

한나는 오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 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들은 엘리는 오해가 풀렸고, 그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축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삼상 1:17-18)

사실 엘리는 한나의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한나가 겸손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그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녀를 축복하며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슬픔과 근심을 버리고 밝은 얼굴로 돌아갔으며 곧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기도 이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을 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의심이나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며, 공인이었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인지 술에 취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성이 탁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기에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며 근심하지 않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를 양육하는 한나의 모습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삼상 1:21-22)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심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젖을 떼는 시기, 즉 유아기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상 3-7 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어떻게 신앙적인 교육을 받느냐는 그 아이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두번, 교회에 말기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실제적인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지..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올바르게 서 있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서원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신중하게 서원해야 하는지,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내 인생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서원해서 기도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과 꼭 배웠으면 하는 모습을 한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